

#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최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급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공급곡선이 좌로 이동한다. 수요초과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 수요곡선이 우로 이동한다. 반대로 공급초과에 의한 디플레이션이면 공급곡선이 우로 이동하고, 수요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이면 수요곡선이 좌로 이동한다.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이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고정리 및 대할인을 했다면, 그것은 디플레이션의 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자체가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너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기 빠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하는 셈이다.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없는 정도라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일반 경제라면 약간은 있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화폐의 실질수요가 늘게 되고, 실질수요를 맞추기 위해 돈을 공급을 늘리다보면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는 이론이 있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성장의 동기가 된다.

물가상승이 불안정하니까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업가들이 경기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사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경제는 사업하는데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일

정하지 않고 매우 높은 것이 위험한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급이 과도해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 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수요가 부족해서였다. 실업자가 많아서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줄으니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떨어지니 기업은 돈을 더 못 벌게 되며, 해고가 된다. 실직자가 더 늘고, 소비는 더 준다. 물가는 더 떨어진다.

케인즈가 주장한 수요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광범위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금리를 낮추어 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자산디플레이에 있다.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나자 빚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파산하고, 그로인한 부실채권 문제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짓누르게 되었다. 일본은 저금리정책을 통해 디플레를 극복하려 했으나, 유효하지 않았다. 이른바 유동성함정에 빠진 것이다. 디플레이션 때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간다. 실질부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각국에 노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인플레이션국가이었지만, 디플레이션국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 등이 이유이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경제에 더 유해한 것이다. 단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